

성경의 맥잡기 – Chapter 3. 가나안 정복 및 사사 시대

D.P.Joshep 2010-06-07 22:51:44

조회 26 스크랩 0

여호수아서는 두 가지의 스토리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의 정복이고 다음 파트인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그 당시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은 원래부터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는 야곱의 패밀리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잠시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이주하였기에 잠시 비워진 땅이었습니니다. 하지만 거의 450년의 기간 동안 다른 종족이 차지하여 있었던 땅입니다. 이제는 원 주인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원 주인들의 귀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족속들은 여러 범죄로 죄악이 가득 찬 땅이었습니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정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이들을 모두 청소하라 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 범죄를 범한 가나안 민족들을 잘 타이르거나 공생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으로부터의 감염을 막을 필요가 있었습니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모두를 척결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큰 고초를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입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에서는 가나안 및 여리고 성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며, 4장에서 12지파를 의미하는 12 돌을 취하고, 5장에서는 할레와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시기에 만나는 중단됩니다. 6장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가나안 중부지역을 정복합니다. 정복하는 과정에 첫 번째 전쟁에서 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에서 고전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남부로 내려가서 가나안 남부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전쟁이 길어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해의 운동을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11장에서 보면, 남부 지방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민수기에서 다룬 요단강 동편을 점령 2민족 그리고 서편의 31개의 민족을 점령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말해줍니다. 이제 13장에서는 정복한 가나안을 분배할 시기입니다. 13장에서 보면은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만, 레위지파에게는 땅 분배에서 제외됩니다. 14장에서는 땅 분배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할 것이 나와 있고, 광야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인물 중에 하나인 '갈렙'이 등장합니다.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어서 1인자가 되지 못한 '갈렙'이지만, 그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향력을 누리지 않고 모두가 정복하기 어려워서 꺼리는 헤브론을 자신이 앞장서서 정복하겠다는 모범을 보입니다. 이 곳에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15장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유다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 받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 땅 분배를 받고 17장에서 다른 아들인 므낫세가 땅을 분배 받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베냐민이 땅을 분배 받고 19장에서는 다른 형제들의 지파가 땅을 분배 받는 것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레위지파가 머무를 곳인 48개 성읍을 마련해준다. 그러고 나서 22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에 미리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의 일부 지파가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이들이 요단강 쪽에 커다란 제단을 쌓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에 있는 데, 이 세 개의 지파가 다른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하여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9개의 지파가 연합하여 실로에 있을 때에 요단강 동편의 3개의 지파가 해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데, 연합된 9개 지파에서는 동편의 3개 지파에 제안을 합니다. 동편의 땅이 불편하면 자신들의 땅을 양보할 테니 서편으로 넘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편의 3개 지파는 제단을 쌓은 목적은 시간이 흘러서도 하나의 하나님 내의 공동체임을 표시하기 위함이며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며 같이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습니니다. 그러고 나서 23장으로 넘어가며 이스라엘의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경계를 위한 경고를 하고 나서 24장에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이스라엘은 상당히 혼란해졌습니다. 유목민 생활에서 정착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려운 시대였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난감해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습니 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며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다 서로 제각각이었습니 다. 그렇기에 서로 범죄하기에 바빴습니 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민족을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투수처럼 잠시 동안의 리더십들을 세우셨는 데, 이를 '사사'라 하였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들 모두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모두 죽이라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사람의 정으로나 혹은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민족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2장에서 서술했듯이, 화가 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민족들이 사라지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의 장치로서 이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웃니엘, 에훗, 삼갈, 최초의 여성 리더십 드보라,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무찌른 기드온, 그의 아들 아비멜렉, 돌라, 야일,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친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마지막 사사 이며 장사로 유명한 삼손을 사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서 보면,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였는가를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17장과 18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가 사설제사장을 레위인 중에 고용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전쟁을 나가면서 그 레위인 사설 제사장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를 스카웃을 해갑니다. 이에 '미가'가 '단'지파에게 항의하지만, '단'지파의 협박에 봐주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19장에서 21장까지 있는 데, 이야기상 권위가 있어 보이는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 다. 그런데 그 첩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집단강간의 변을 당하고 레위인의 첩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레위인은 죽은 첩의 몸을 12개로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지파 연합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는 데,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자, 이 연합군은 연합에 참가하지 않은 갓 지파의 수도를 가서 모든 남성들을 죽이고 처녀 400명을 잡아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와 짝이 안 맞자 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머무르는 처녀 200명을 납치해 갑니 다. 이런 두 가지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서 리더십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는 혼란스럽고 제 각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준이 없으면 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사람들의 관점이나 가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망하게 됩니다.

사사기 다음의 성경인 룯기서도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룯이란 여인을 중심으로 하여 시어머니 나오미와 훗날 남편이 될 보아스가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서론부분은 무척이나 암울합니다.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남편과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 뿐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온다. 여기서 멋진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룯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룯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던 왕이 이 가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데,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메시아가 이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